



파란 눈 목자와의 대화 - 모방 신부의 서한(13)

박해시기 선교사제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제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¹⁾

(저번 호에 이어)

[이호영의 옥중 편지 - 1836년 11월 6일(양력 12월 13일) 심문 내용]

[원문 141쪽]

(심문) 너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옳은 말이지만, 조정에서는 그 (천주)교를 금지하고 그 교를 믿는 사람을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는 [원문 142쪽] 왜 헛되고 쓸데가 없는 것이라고 하느냐? (흠송한다는 의미로) 너의 천주를 표상하는 것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도 헛되고 쓸데없는 짓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너의 천주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왜 네 조상들의 (부모의) 위패를 공경하지 않느냐?

(답변) 천주님은 전능하시고 한없이 좋으시며 모르시는 것 없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천주님을 공경하고 흠송합니다. 천주교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천주교회에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바치는 특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심문)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일 뿐,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너에게 그런 낭설을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

(답변) 우리 집에 있던 책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의 이름을 대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답변) 서울 서소문 변두리에서 살던 이씨입니다.

(심문) 살아있는 사람인가?

(답변) 아닙니다. 그분은 정해년(1827)²⁾ 에 전라도의 감영이 있는 전주에서 순교한 분입니다.

(심문)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왜 대는가? 너와 같은 사교쟁이들의 이름을 죄다 말하라!

(답변) <이런 말을 하여 이호영은 (그동안에 한) 훌륭한 답변들을 불행히도 빛바래게 하였다> 아는 이가 없습니다.

(심문) 그 고집을 왜 버리지 않는가?

(답변) 진정한 저의 결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때에 누군가 나의 교회서적들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묶어서 추방(秋房)³⁾ 앞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권(MEP V.1260), ff.141~144로, 자필본이다.

2) 정해년: 원문에는 '정해년'에 이어 'kan oei'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조선의 달력에는 각 해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60년마다 돌아온다"는 설명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간지(干支)'에 대해 프랑수아 독자에게 설명해 준 것인데 본문에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누님도, 저처럼, 믿는 진리를 증언하였습니다. 누군가 형틀(이라고 하는 고문에 사용되는 도구)를 (밖으로) 옮겨 놓고 별장(別杖)⁴⁾(이라고 하는 다른 고문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고문을 받아도, 받지 않은 것처럼 견뎌냅니다.

악독한 추방은 (우선 형리들에게) “쳐라, (마구) 쳐라!”라고 하고 (나에게는)

(심문) 마음을 바꾸겠느냐? (사교를) 고집스럽게 믿으려 하느냐? 얻어맞을 때에 아픈가?

(답변) (때릴 때),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문) 마음을 바꿔라!

(답변) 천주교 서적들을 읽은 결과로 저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심문)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답변) 모르고 있던 진리를 알게 된 저는 그 진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심문) 네 머리가 잘리면 천국에 직행할 줄을 믿는가?

그들은 쉴 새 없이 누님과 나를 쳤고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추방은 (나에게) 묻기를,

(심문) 너는 죽기로 결심했나?

(답변) 누님과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문) 이 나쁜 자들아, 속히 죽기를 바라는 모양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수도 없이 한도 없이 맞을 줄 알아라!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저에 대한 매질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칼을 씌워서 머리가 숙여지고 녹초가 된 누님은 순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쉴새 없이 순교하는 은총과 주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쓴 이야기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나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상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월(至月)〈음력 11월〉⁵⁾ 29일(양력 1837년 1월 5일) 이(호영) 베드로 올림.

추신 : 제 두 다리는 다 찢어졌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천주께서 주신 은총으로 저는 아직 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자들 모두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의 소식들이 궁금합니다.

3) 추방 :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형률의 일을 담당하는 형방(刑房)의 별칭인 ‘추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 별장 : 정해진 법식대로 만들지 않은 신장(訊杖, 신문 때 쓰는 몽둥이)을 말한다. 신장은 한쪽이 둥글고 끝이 넓적한 형태인데, 별장은 규정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는 법장(法杖)에 비해 훨씬 가혹한 형구였고, 남형(濫刑)의 소지가 많았다.

5) 지월 : 동지(冬至)가 들어 있는 달, 즉 동지월[동짓달, 음력 11월]의 줄임말이다.

간혀 있는 어느 여성 신자도 (감옥에서 당한 일들을) 서면으로 보내주었는데, (이호영 베드로가 쓴 것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 신자가 쓴 것을 동료 신부님들께 보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샤스탕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1837년) 1월 26일⁶⁾에, 김 아가타⁷⁾라는 충실한 신자가, 전날에 받은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받으러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죽게 한 악독한 관장은 이미 37년 전 (1801년 신유년) 첫 박해 때 신자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특히 근래에 한 체험에 때문에 그 폭군의 비인간성과 잔인한 성격이 약간 수그러들었습니다. 김 아가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이제부터 나는 천주교 신자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왕이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에, 국정을 맡은 사람들과, 관원이든 아니든 간에 나라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문제에 간여하지 않고 나라의 현상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국왕은 이제 겨우 열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정을 맡은 이들은 지난 봄에 그를 결혼시켰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 중에서 한 명⁸⁾은 (미성년인 국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순원왕후)와 친근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 천주교회를 항상 은밀하게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는 감사의 명의 주교(브리기에르 주교)께서 보다 더 쉽게 입국하실 수 있도록 추천장까지 써 주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조선의 남부 지방에서 몇몇 불평분자들이 어린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려 했다가, 조정은 곧 그 지역을 수색하게 한 결과로 많은 이들이 잡혔습니다.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천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보호자로 주신> 김(유근)이라는 세도가는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불평분자나) 반란자로 볼까 걱정이 되어서, 곧 ‘제1 섭정’(영의정⁹⁾)을 찾아갔습니다. (나

6) 1월 26일 : 샤스탕 신부는 1837년 1월 1일(또는 2일)에 의주로 입국했고, 14일을 걸어서 1월 15일에 서울에 도착했다. 샤스탕 신부가 1837년 9월 15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부와 마카모 대표부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97) 따라서 위의 26일은 샤스탕 신부가 국경을 넘어 조선 땅에 첫발을 내딛은 날(1월 1일)이나 서울에 도착한 날(15일)과 맞지 않는다.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f.357)[이하 《다블뤼 비망기》로 약칭]에는 1837년 1월 15일(음력 1836년 12월 9일) 서울에서 김 아가타가 사망했다고 나온다.

7) 김 아가타 : 샤스탕 신부의 서한에 의하면, 김 아가타는 조선의 왕비를 모시는 궁녀로 살다가 천주교 신앙을 위해 궁에서 빠져나온 처녀였다. 샤스탕 신부가 1837년 9월 12일에 부모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93) 참조. 《다블뤼 비망기》(f.357)에는 김 아가타를 ‘Sien Sa Kong Kak si’라고 했다. ‘Sien Sa Kong’은 현사궁(顯思宮)의 중국식 한자음(xiǎn sāi gōng)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Kak si’는 정식 내인[內人]이 되기 전 수습 중인 궁녀를 부르던 ‘각시’로 보인다. 즉 김 아가타가 현사궁의 궁녀였다는 뜻일 것이다. 현사궁(顯思宮)은 순조의 생모이자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다. 1821년 수빈 박씨가 사망하자 다음해인 1822년에 현사궁을 창경궁 안에 두었다가 1824년 별묘를 세워 경우궁(景祐宮)이라고 했다. 이 경우궁=현사궁[현재 서울 종로구 계동]의 궁녀였던 김 아가타를 ‘현사궁 각시’로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궁은 1886년 인왕동[현재 서울 종로구 옥인동·누상동]으로 옮겨졌다가 1908년 육상궁[현재 철궁, 서울 종로구 궁정동]으로 옮겨졌다.

8) 한 명 : 김유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834년 어린 현종이 즉위한 후 그 할머니(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 김씨가 1841년까지 수렴청정을 했는데, 순원왕후의 오라버니인 김유근이 안동 김씨 세도가문의 수장으로서 조정의 실세를 장악했다.

9) 영의정 : 모방 신부는 김유근이 ‘제1 섭정’(premier régent)을 찾아 갔다고 썼지만, ‘영의정’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라의 남부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반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추정되는 주동자들에 대한 의견 교환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에 은밀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김유근은 “그들에게 혐의를 둘 것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자, ‘제1 섭정’[영의정은 “나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김 아가타가) 옥사하여 순교한 후로, 제 아는 데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온 신자들 가운데서 고문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한 곳에 갇혀 있던 신자들은 (순조 국왕의) 기일에, (마지못해서 그랬다 해도, 실제로는) 비겁하게도 전국적으로 행해진 미신행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샤스탕 신부와 저는 조선의 남부 지방들을 동서(東西)로나 남북(南北)으로, 또는 서동(西東)[**원문 143쪽**]으로나 북남(北南)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다녀보았고 또 다니는 중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가짜 신자들인 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배신을 피하기 위해 저는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신자들에게만 성직자들의 입국이 알려지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용기가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신부들이 조선에 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자기들의 눈으로 저희를 본 냉담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많은 비신자들도 저희가 이 땅에 와 있는 줄 알고 저희를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만일 천주님께서 저희를 아주 특별히 보호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수개월 전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거나 조선의 감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신부들께서 바치신 기도의 덕분으로 저희가 기적적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조선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천주님께 타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이기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신 거룩한 사업이 지속되어 결실을 맺도록 천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시고 천주께서 저희를 여전히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샤스탕 신부는 자신의 조선 입국에 관한 보고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입국을 위해 이곳의 저희들이 했던 준비보다 그분의 입국이 더 수월했습니다. (그분의 입국을 돕기 위해서) 국경으로 갈 사람들이 이곳에서 출발하기 전날 저녁에, 떠난다는 인사를 저에게 하러 와 있었던 바로 그때에, 갑자기 찾아온 어떤 신자가 한 말에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찰이 하는 일을 이곳에서 관차(官差)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신자는 관차들이 반란자들을 잡으려고 행인들을 수색하고 그들의 소지품들을 뒤져보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의 안장까지 뒤져본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튿날에 떠날 예정이었던 파발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신부가 내년에 오면 좋겠습니다” 하자, 저는 일이 꼬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 로베르(Robert JÉZÉGOU)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sans obstacle, fut obéi à la persécution de Yang Seï qui sont les auteurs ordinaires des persécution¹⁴
 j'avois recommandé de s'apprendre l'arrivé d'ici prêtre ga à ceux qui observent la religion; car
 nous avons de timides observants, mais cette commandation n'a pu avoir entièrement son effet
 non seulement un grand nombre d'observants savent notre arrivée, nous ont vu mais bien des
 parents mêmes de sorte que si la provid. Divine ne nous protégeroit d'une manière toute spéciale il
 y a déjà de mois que nous serions dans le ciel ou dans les prisons de force. C'est à vos prières
 M^{rs} pères et très chers frères que nous devons notre entree et notre conservation miraculeuse en ce pays
 nous sommes incapables de lui rendre de justes actions de grâces, veuillez donc nous en conjurons veillez
 donc, continuant votre sainte œuvre vers la fin, offrir de précieux sacrifices d'actions de grâces et le disposez à
 nous continuer cette divine protection divine.

M^r Chastan vous a fait la relation de son entrée en force, elle fut plus facile que les préparatifs
 la suite de départ sur le soir au moment même où les chrétiens qui devoient l'introduire étoient réunis
 tout me salut, un autre chrétien vint jeter la fragence parmi eux, les bouvains employés qui remplissent
 l'office de gendarmes en France, dit-il, sont à la poursuite de jurer ils fouillent les voyageurs, de plus
 leurs marchandises et examinent jusqu'à dans la selle des chevaux. Si j'en avais un peu d'effie, et
 il est bon de remettre à l'an prochain d'un de ces courriers. L'expédition me parut un peu difficile, et
 j'appris M^r Yu vouloir s'en retourner, il s'agissoit d'envoyer trois enfants et d'introduire M^r Chastan
 c'étoit un gros motif de danger journalier, car M^r Yu ne savoit pas parler coréen et de son côté
 ne pouvoit répondre aux inquiétudes, il auroit été arrêté à la première rencontre ainsi que tous ceux qui l'ac-
 compagnaient, de la une persécution générale. M^r Chastan en venant causoit le même danger, les
 me jura que, que pensiez-vous de cette affaire? je à M^r Yu (il avoit passé toute la journée avec moi
 que j'en avais une idée, et partis il en riant, je n'ai pas peur je partirai, je réfléchis quelque peu
 je ne pus m'imaginer qu'il leur arrivasse quelque accident, je travaillai donc à
 les faire diffuser ment, je leur promis, d'offrir, pendant cette expédition d'angeruse de s. d. sacrifi-
 peut leur obtenir un heureux voyage et un heureux succès, et ils se résignèrent à partir. La Div. me pré-
 seconda nos vœux M^r Chastan entra et parvint jusqu'au milieu du royaume sans éprouver le
 moindre accident. M^r Yu et les 3 enfants arrivèrent de même à plein men. M^r Yu étoit hors d'angoisse
 Nous avons lieu de croire que la Div. providence a continué sa benigne protection aux enfants
 au moins jusqu'à Hinciao car s'ils avoient été arrêtés en Chine je gouverneme^t coréen en auroit
 été informé par les chinois que l'empereur en voya ici en octobre dernier et nous en aurions infalli-
 blement reçu quelques nouvelles.

M^r Chastan étoit heureusement arrivé; j'en avois plus à craindre aucune observation contre
 la Religion en force; j'étois débarrassé du soin des enfants; les chrétiens les plus empêchés
 de recevoir les Sacraments avoient été administrés; les plus avides d'instruction avoient reçu
 réponse à leurs questions; je me trouvais en liberté, et dans le cas de pouvoir donner quelque temps
 à l'étude de la langue pour laquelle j'en avois pu trouver 20 jours libres, je me retirai à Yang
 qui est hors de la capitale après quatre semaines d'étude j'administrai la Christianité
 M^r Chastan après deux mois passa à étudier l'examen de conscience traduit en langue coréenne
 et estant capable d'entendre les confessions ^{simultanément j'ai préparé} en entendant une centaine à la ville
 on l'eût resté et vint ensuite me trouver à Yanggeun qui se trouva passer ensemble
 le reste de l'après midi nous nous dirigâmes ensuite au vers le midi d' votre persécution vers
 nous nous rencontrâmes le 16 juillet il revenoit à la ville prendre du repos. j'avois de façon
 de visiter quelques villages qui n'avoient jusqu'ici encore été administrés

[Provider:article] Downloaded by IP 115.21.88.91 at Monday, January 23, 2023 9:01 PM

〈판독〉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1837.11.17경)

[f.141]

(...)

– Tu dis la vérité ; mais le gouvernement prohibe cette doctrine sous peine de mort ; et en quoi les sacrifices aux ancêtres sont-ils vains et inutiles ? Fléchir le genou (adorer) devant une¹⁾ image du Maître

[f.142]

du Ciel, n'est-ce pas aussi une action vaine et inutile, pourquoi n'adores-tu pas aussi bien les images de tes parents²⁾ ?

– **R.** Le Maître du ciel est tout puissant, infiniment bon, connaissant³⁾ tout ; voilà pourquoi je l'adore ; dans la religion du Maître du Ciel, on prie pour les âmes des parents défunts ; il y a des prières spéciales pour les morts.

– Tu parles tout seul. Qui est-ce qui ajoute foi à tes paroles, qui est-ce qui t'approuve ? Qui est-ce qui t'a enseigné cette doctrine ?

– **R.** Il y avait⁴⁾ chez nous⁵⁾ des livres où je l'ai apprise.

– Ne peux-tu dire quel a été ton instructeur ?

– **R.** Ce fut un nommé Y, qui demeurait⁶⁾ dans le fauxbourg⁷⁾ de la petite porte de l'ouest.

– Cet homme vit-il encore ?

– **R.** En l'année Tchang hei niên kan oei⁸⁾ (c'est un nom d'année de 60 ans qui composent⁹⁾ le siècle coréen. Chaque année a ainsi son nom particulier.) [[il fut arrêté emprisé]] il fut martyrisé à Tchien tchou (capitale de la province de Kien la tao¹⁰⁾)

– Pourquoi dénonces-tu les morts ? Dénonce tous tes amis corréligionnaires.

– **R.** [[Je n'en¹¹⁾]] (le malheureux ombrage ici la gloire de son¹²⁾ dialogue) Je n'en ai pas.

– Pourquoi ne changes-tu pas de résolution ?

– **R.** Comment puis-je changer une sainte résolution ?

[[On apporte la boîte de mes livres]] On ferme la petite malle qui renferme mes livres, on la¹³⁾

1) un *ms.*, D(D: 지경환, 2006) 2) parents D: paren† *ms.* 3) connaissant D: connoissant *ms.*; *ante* connaissant, et *add.* D 4) avait D: avoit *ms.* 5) nous D: no†s *ms.* 6) demeurait D: demeur†it *ms.* 7) faux bourg *ms.*, D 8) oui D 9) compose D 10) Kien la tao D: Kienlatao *ms.* 11) ne D 12) son D: so† *ms.* 13) l'a *ms.*, D

porte au juge. Ma sœur rend le même témoignage à la vérité. On ramasse Hiong teul (c'est le nom d'un instrument de supplice), on apporte pieul tchang (c'est le nom d'un autre instrument de supplice) Les vrais chrétiens ne sentent pas les supplices ; frappe, frappe dit le [[bourreau juge]] tyran.¹⁴⁾

– Changeras-tu de résolution, persévereras-tu dans ton dessein ? Sens-tu les coups ?

– **R.** Comment pourrais-je ne pas souffrir ?

– Change de résolutions.¹⁵⁾

– **R.** Lorsque j'ai lu les livres chrétiens, j'en ai changé.

– Ne peux-tu plus changer ?

– <**R.**> Du sein de l'ignorance ayant aperçu la vérité, je ne puis l'abandonner.

– Si l'on te tranchait¹⁶⁾ la tête, tu irais¹⁷⁾ droit au Ciel.

On frappe¹⁸⁾ sans discontinuer, nous ne cessons <pas> de répéter les saints¹⁹⁾ noms de Jésus et de Marie.

Le tyran : es-tu décidé à mourir ?

– **R.** C'est notre grand désir.

– **D.** [[De]] Mauvais sujets que vous êtes, vous²⁰⁾ voudriez [[vous]] promptement mourir ? On vous en donnera sans compte et sans nombre.

Enfin ils cessèrent de me²¹⁾ frapper. Cependant²²⁾ ma sœur, la tête courbée sous la²³⁾ cangue et épuisée, [[demande le²⁴⁾]] soupire après le martyr,²⁵⁾ qu'elle ne cesse de demander [[en souffrant]] ainsi que l'assistance du Seigneur. C'est ce qui a été vu et²⁶⁾ entendu par une multitude de personnes. Je ne puis prolonger ce récit, je ne puis développer les pensées innombrables²⁷⁾ qui remplissent²⁸⁾ mon âme. Le 29 de²⁹⁾ Chi oeul³⁰⁾ (c'est un des noms de la 11^e³¹⁾ lune) Pierre Y. J'ai eu les jambes toutes déchirées³²⁾ ; ce n'était qu'une plaie. Cependant³³⁾ grâce à Dieu, je n'ai pas encore beaucoup

14) juge tyran *s.l.* 15) résolution D: rétlution *ms.* 16) tranchait D: tranche *deinde* it *s.l. ms.* 17) irais D: irois *ms.* 18) frappe D: fŕppe *ms.* 19) SS *ms.*, D *s.l.* 20) *s.l.* 21) *s.l.* 22) *s.l.* 23) tête courbée sous la *s.l.* 24) la D 25) martyr D: martyr *ms.* 26) ou D 27) innombrables D: innombrablŕs *ms.* 28) remplissent D: *male legitur ms.* 29) Le 29 de *s.l.* 30) Chioeul D 31) 11^e D: 11 *ms.* 32) déchirés D: *male legitur ms.* 33) ce n'était qu'une plaie. Cependant D: ce...Cepend *non legibilia ms.*

souffert. J'ai souhaité la paix à tous les chrétiens, et je désire en avoir des nouvelles.”

Une des captives³⁴⁾ a aussi envoyé sa relation ; mais comme elle n'est qu'un³⁵⁾ abrégé de celle-ci, je n'ai <pas> cru utile de l'envoyer. Le 26³⁶⁾ janvier, jour de l'entrée de M^r Chastan en Corée, une fidèle chrétienne nommée Agathe Kim alla dans le Ciel recevoir la palme du martyre³⁷⁾ qu'on lui avait³⁸⁾ souffrir la veille. Le tyran qui l'avait³⁹⁾ ordonné est le même qui⁴⁰⁾ tourmentait⁴¹⁾ les chrétiens dans la première⁴²⁾ persécution il y a 37 ans. Il paraît que les années et cette dernière expérience ont⁴³⁾ un peu adouci l'inhumanité et la barbarie de son⁴⁴⁾ caractère. On rapporte qu'ayant appris la mort de cette martyre⁴⁵⁾, il dit : “Je ne me mêlerai plus des affaires de chrétiens.”

Les premiers administrateurs et les grands⁴⁶⁾ du Royaume, mandarins et autres, ne s'occupent pas des affaires de la Religion. Ils s'attachent à maintenir le⁴⁷⁾ gouvernement in statu quo pendant la minorité du roi [[en bas âge]]. Il n'a que 10 ans ; cependant ils⁴⁸⁾ l'ont marié au printemps dernier.

Un des grands, ami particulier du premier et principal régent du royaume ; celui-là même qui donna une lettre de recommandation pour faciliter l'introduction de feu mon très cher Seigneur⁴⁹⁾ de Capse en Corée, ne cesse de nous témoigner les marques d'une protection soigneuse. En automne de l'année dernière, il y eut vers le midi quelques esprits turbulents qui voulurent former une conspiration contre le jeune roi. Le gouvernement mit aussitôt à leur poursuite. On en arrêta un grand nombre. Kin (c'est le nom du protecteur humain que la Divine Providence⁵⁰⁾ nous a ménagé en Corée) [[fut aussitôt trouver le premier]] craignant que l'on ne nous confondît avec les rebelles, fut aussitôt trouver le premier régent, et s'entretenant avec lui sur les auteurs soupçonnés de cette rébellion, quand l'examen arriva aux chrétiens, “Il n'y a rien à craindre de leur part, dit Kin, notre protecteur, ce ne sont certainement pas eux qui ont suscité cette [[perverse conspiration]] rébellion.” “Je le sais⁵¹⁾ bien”, répartit⁵²⁾ le premier régent. Depuis ce martyre⁵³⁾ du 26 janvier dernier, les confesseurs n'ont été mis à aucune épreuve, que je sache. Les autres chrétiens en un seul endroit seulement ont eu la lâcheté de participer aux superstitions générales⁵⁴⁾ faites à l'occasion de

34) captives D: c†tives *ms.* 35) qu'une D 36) 26 D: †6 *ms.*, *cf.* Depuis ce martyre du 26 janvier dernier 37) martyre D: martyr *ms.* 38) avait D: avoit *ms.* 39) l'avait D: l'avoit *ms.* 40) que D 41) tourmentait D: tourme†toit *ms.* 42) p.^{re} *ms.*, D 43) ont D: o†t *ms.* 44) don D 45) martyre D: m†rtyr *ms.* 46) grands D: gr†nds *ms.* 47) le D: l† *ms.* 48) il D 49) Seigneur D: Seig†eur *ms.* 50) prov. *ms.*, D 51) sçais *ms.*, D 52) répartit D 53) martyre D: martyr *ms.*

l'anniversaire du dernier roi défunt.

M^r Chastan et votre serviteur nous avons parcouru et⁵⁵⁾ parcourons les provinces méridionales du royaume⁵⁶⁾ de long en⁵⁷⁾ large dans tous les sens, [sans éprouver]

[f.143]

sans obstacles. Pour obvier à la perfidie des faux frères, qui sont les auteurs ordinaires des persécutions, j'avais⁵⁸⁾ recommandé de n'apprendre l'arrivée des prêtres qu'à ceux qui observent la Religion, car nous avons de timides chrétiens inobservants. Mais cette recommandation n'a pu avoir entièrement son effet. Non seulement un grand nombre d'inobservants savent notre arrivée, nous ont vus,⁵⁹⁾ mais bien des payens⁶⁰⁾ mêmes. De sorte que, si la Providence⁶¹⁾ Divine ne nous protégeait⁶²⁾ d'une manière toute spéciale, il y a déjà des mois que nous serions dans le Ciel ou dans les prisons de Corée. C'est à vos prières, Messieurs et très chers frères, que nous devons notre entrée et notre conservation miraculeuse en ce pays. Nous serions incapables de [[lui]] rendre à Dieu⁶³⁾ de justes actions de grâces, veuillez donc nous vous⁶⁴⁾ en conjurons, veuillez donc, continuant votre sainte œuvre vers sa fin, lui⁶⁵⁾ offrir des sacrifices d'actions de grâces et le disposer à nous continuer cette [[Divine]] protection Divine.

M^r Chastan vous a fait la relation de son entrée en Corée. Elle fut plus facile que les préparatifs. La veille du départ, sur le soir, au moment même où les chrétiens qui devaient⁶⁶⁾ l'introduire s'étaient⁶⁷⁾ réunis pour me saluer, un autre chrétien vint jeter⁶⁸⁾ la frayeur parmi eux. Les kouant tsai, employés qui remplissent l'office de gendarmes en France, dit-il, sont à la poursuite des insurgés, ils fouillent les voyageurs, déploient leurs marchandises et examinent jusque dans la selle des chevaux. *Sin pou nai nien tio kê somneta*⁶⁹⁾ il est bon de remettre à l'an prochain, ajouta⁷⁰⁾ un des courriers. L'expédition me parut un peu difficile.

판독·번역교정 : 정혜정 마리아 / 본 연구소 연구원

54) *s.l.* 55) avons parcouru et *s.l.* 56) les provinces méridionales du royaume *s.l.* 57) et D 58) j'avais D: j'avois *ms.* 59) vu *ms.*, D 60) payens *ms.*, D, *cf.* païens 61) provid. *ms.*, D 62) protégeait D: protegeoit *ms.* 63) à Dieu *s.l.* 64) *s.l.* 65) *s.l.* 66) devaient D: devoient *ms.* 67) s'étaient D: s'étoient *ms.* 68) jeter *ms.*, D 69) Sin pou...somneta] *cf.* 신부 내년 좋겠습니다; somneta D 70) outa *s.l.*